

응급상황 대응 지침



1. 응급상황 발생 시 유의사항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의 종사자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2. 응급상황 대응절차

응급상황발견(위급유형, 상태파악)

↓ ↓

종사자 : 응급조치 관리자에게 연락, 보고

↓ ↓

담당 관리자 : 추가 조치사항 지시·시행 의료기관 연락
(협약병원 또는 119에 위급 유형·상태 설명)

↓ ↓

종사자 : 지시에 따른 조치 후송 및 내방지원

↓ ↓

담당 관리자 : 조치 결과 확인

↓ ↓

응급상황발견자 : 응급상황 기록지 작성 및 보고

▶ 단, 경미한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

3. 응급상황의 유형

-기도폐쇄 : 경련

-호흡곤란 : 화상

-쇼크(저혈당, 기립성 저혈압) : 뇌졸중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외상 : 출혈(코피)

-고혈압 : 가슴통증

4.응급조치 방법

☞ 가장 먼저 이렇게...

1. 의식 저하 및 호흡 곤란 시 기도를 유지하면서 흡인이 가능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
2. 골절 시 어르신을 관찰하며 신속히 의료진에게 연락
3. 쇼크 시 활력증후 체크를 하고
 - 저혈당이면 의식이 있을 시 사탕이나 설탕물을 공급하고
 - 의식이 없을 시 신속히 의료진에게 연락한다.

1)기도 폐쇄

음식 섭취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 - 설압자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한다.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한다.

바로 흡인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한다.

2)호흡곤란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병원으로 이송한다.

3)저혈당 쇼크

-증상 : 식은땀, 어지러움, 허기짐, 실신, 의식장애, 기력저하

-응급처치 : 활력징후 및 혈당을 체크한다.

••의식이 있을 경우 : 적합한 음식과 양은 음료수(사이다, 콜라)1/2잔, 우유1잔, 주스(가당)1/2잔, 요구르트 1병, 설탕 1큰 술, 사탕3~4개, 초콜릿 3쪽,꿀 1큰 술을 제공한다.

••의식이 없을 경우 :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의료진에게 연락을 한다.

4)골절

-증상 : 낙상 또는 부딪힘 등으로 인하여 통증 호소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응급처치 : 되도록 몸을 적게 움직이게 하고 불필요한 행동은 못하도록 한다.

- 신속히 의료진을 부른다.

- 골절 부위에 피가 나면 지혈을 해주고,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준다.

- 나무판이나 두꺼운 잡지 등을 이용한 부목을 골절 부위에 대고 골절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다.

5)고혈압

-증상 : 두통, 어지러움 등

-응급처치 : 활력징후 측정, 의식이 없을 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혈압이 160/90 이상 시 누워서 머리를 올리는 자세로 누워서 안정을 취한다.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6)화상

- 화상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 찬물에 15번 이상 씻어주며 열기를 식혀준다.
- 흐르는 물에 직접 닿게 되면 수압으로 인해 피부 손상을 입게 되므로 주의한다.
- 화상부위의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며 장신구는 빨리 제거한다.
- 세균 감염에 주의 하도록 한다.

7)뇌졸중

- 증상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의식소실, 마비현상, 의식소멸
- 입가가 밑으로 처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 응급처치 :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상체를 높이고 다리를 낮춘다.
- 기도폐쇄를 예방한다.
-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풀어 순환과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
- 금식시킨다.

8)심근경색 및 협심증

- 증상 : 갑작스럽게 짓누르고 조이는 것 같은 앞가슴 통증, 청색증, 오심, 식은땀, 호흡곤란
불규칙한 맥박, 의식소실
- 응급처치 :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좌위나 반좌위 자세를 유지한다.
-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 필요시 산소를 흡인시킨다.
- 금식시킨다.
- 니트로글리세린 응급약을 혀 밑에 넣어준다.
- 필요시 병원으로 옮긴다.

9)출혈

- 출혈 시 3~5분 지압한다.
-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 지압 시 냉습포를 대어준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0)기립성 저혈압

- 증상 : 현기증이나 두통, 사지가 차갑고 무기력, 식은땀, 안면 창백, 불면증상과 서맥(맥박이 서서히 뛰는 것), 구역질, 실신 등의 증상
- 응급처치 :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리는 자세로 휴식을 취한다.
- 의식저하 바로 의료진에게 연락한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1)코피

- 콧방울 위로 지압을 한다.
- 얼음주머니 대주기와 떼기를 반복한다.
- 10분간 압박해보고 코피가 계속나면 다시 반복한다.
- 콧속 거즈 등으로 막아준다.
- 필요시 병원으로 옮긴다.

12)경련

-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은 풀어준다.
-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 질식 예방을 위해 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5. 심폐소생술



01

반응의 확인과 119 신고



환자의 어깨를 두드려 의식을 확인한다.



반응이 없을 시 119에 신고한다.



주변에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있다면 사용한다.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02

호흡 확인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관찰(10초 이내)해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거나 비정상이면 심정지로 판단한다.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03

가슴압박 30회 시행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환자를 눕힌 다음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 부분을 댄다.
이때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03

가슴압박 30회 시행



가슴압박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약 5cm 깊이(소아 4~5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입으로 숫자를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하며,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한다.

가슴압박 시
주의사항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03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회복자세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반응이 없으면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행한다.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